

뉴욕에 거주하는 한국청소년들의 Cultural Identity 발달과 직업선택의 상관

김 태 호*
(중앙대학교)

I. 緒 論

지난 20여년 동안 미국에 살고 있는 아시안계 학생들의 進路지도에 관한 관심과 論議가 점차 증가되어 왔지만 그에 관련된 연구의 대부분이 문화적·민족 특유의 類型論(typology)的 접근이었다. 그러한 결과로 학교에서 진로지도를 담당하는 학교 카운슬러들은 “미국 사회에서의 아시안계 학생들은 장래 직업에 대해 유사한 요구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일률적이고 잘못된 가정과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진로 진도를 할 가능성이 많아졌다. 특히, 아시안계 학생들의 우수한 數理능력과 대조되는 열등한 언어 구사력, 사회적으로 내향적인 성격특성 등이 과학, 기술의 몇몇 분야로의 장래 직업을 탐색·추구하는 경향을 무비관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진로결정의 중요한 요인들을 수용하기 전에 몇가지 생각해볼 점은 첫째, 과연 아시안계 학생들이 수학이나 자연계에 일반 미국 학생들에 비해 우수한 재질이 있는가? 둘째 이에 관련된 조사연구의 결

* 시라큐스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과가 전체 학생에 일반화시킬 수 있을 만큼 표집은 잘된 것인가? 셋째, 문화적·민족 특성등을 주로 한 類型論的 연구가 지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급격한 발달을 이루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할때 적합하고 바람직한가? 특히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 과제인 자아정체감(identity)에 대한 고려 없이 청소년들의 문화적·민족 특유의 특성 및 類型論的 진로지도에 관한 연구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기 동안 자아정체감의 발달과 성취에 대한 고려는 미국 사회에서의 아시안계 학생들에게는 동서문화의 갈등이 불가피하므로 더욱 중요해 보인다.

자아정체감의 발달단계에 따른 직업선택의 고찰은 학교 카운슬러들로부터 하여금 아시안계 학생들의 진로 요구, 관심, 그리고 희망에 대해 類型論的 연구의 결과로 비롯된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그리고 동서문화적 갈등에서 자아에 대한 정체체를 확립해야 하는 아시안계 학생들의 입장을 자아정체감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학교 카운슬러들을 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진로지도를 함에 있어 학생들의 적절한 진로 결정시기를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기여할 수 있다.

II. 理論的 背景

1. 아시안계 학생들의 進路에 대한 관심과 능력

아시안계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몇몇 제한된 직업분야에 한정되어 논의되어 왔다. 진로결정의 주요요인으로 부족한 영어능력, 우수한 수학 능력, 그리고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는 동양의 문화적 특성에 의해 형성되는 성격특성 등이 아시안계 학생들로 하여금 일반 과학 기술 및 공업기술 분야로의 관심과 진출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Hsia, 1985; Sue & Frank, 1973; Sue & Kirk, 1972 :

Sue & Kitano, 1973; Yee, 1973; 1957). 1988년도의 학력적성검사인 SAT점수도 이와 일치된 경향을 보인다. 즉, 아시안계 학생들의 수학 점수는 522점으로 전체학생들의 평균 점수인 408점 보다 높았으며 영어점수는 408점으로 전체 학생들의 평균점수인 428점보다 낮았다.

Sue와 Kirk(1972)은 중국계 학생들의 학업 능력, 직업에의 관심 및 성격특성의 연구에서 SAT의 우수한 수학 점수와 낮은 영어점수가 활발한 사회성이 요구되는 판매 및 사업적 인간관계를 위한 접촉 등 세련된 언어구사력이 요구되는 직종보다는 자연과학·기술 분야의 선호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Yee(1975)는 아시안계 대학원생들의 전공실태를 %로 제시했는데, 약 77%의 학생들이 공업·기술·분야에, 11%가 사회과학분야에, 5%가 예술과 인문학에 그리고 3%가 교육분야에 전공을 택하고 있었다. 대학원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편파적인 전공분야는 그 후 연차적으로 발표되는 National Board of Graduate Education에서의 보고서에서도 일치된 경향을 보인다.

Kwak(1980)은 Holland의 Self Directed Search(SDS)를 사용하여 아시안계 청소년의 직업에 관한 관심도를 조사하였는데, 이 연구에 의하면 40.8%의 표집된 학생이 탐구적인 직업환경을 선호하였고 그 관심양상은 높은 일관성(consistency)을 보였다. Hsia(1985)는 유아교육에서 대학원과정까지 아시안계 학생들의 우수한 수학점수와 열등한 영어능력을 지적하며 아시안계 학생들이 보다 나은 언어를 습득하지 않으면 장래의 진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Sue와 Kirk(1970)은 아시안계 학생들의 진로선택은 그들의 학업능력 뿐 아니라 문화적·민족적 성격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2. 아시안계 학생들의 진로선택과 성격특성

Leong(1985)은 아시안계 학생들의 성격특성을 통제의 위상(locus of control), 사회적 불안과 근심, 그리고 모호성에 대한 결핍된 인내심 등

으로 고찰했다. Meredith(1966)와 Sue & Kirk(1972)의 연구를 참조하여 Leong은 아시안계 학생들은 일반 미국학생들보다 덜 자발적이고 더 의존적이며 윗사람에게 보다 복종적이라고 설명하고 자신을 통제하는 강화제가 자신의 내부가 아닌 외부에 있다며, 그것은 그들의 진로를 선택 결정하는 방식 뿐만 아니라 직업 선택의 본질과 양상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Sue(1973, 1975)과 Sue & Kirk(1972)의 연구에 의하면, 아시안계 학생들의 사회적 불안과 근심은 공업기술과 관련된 직업 부문에 국한하여 그들의 진로를 선택결정케 한다고 했다. 또한 정서적으로 위축된 성격특성은 그들을 사회적으로 고립되게 만들며 제한된 언어구사력과 애항적이고 수동적인 성격특성도 공업·기술과 관련된 몇몇 제한된 직업 분야의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이와 같이 아시안계 학생들의 진로선택과 결정의 주요요인들을 배경으로 좀더 진보된 연구들은 미국생활에 노출되는 동안 아시안계 사람들이 얼마만큼 그들 고유의 문화와 민족적 성격 특성을 간직하고 유지해온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미국문화의 영입과 동화(同化)의 개념으로 개인차를 설명한다.

3. 직업선택, 美文化的 同化, 인종적 자아 정체감

아시안계 학생들의 미문화의 동화된 수준은 동서문화적 갈등을 해결하는 서너 가지 방법들 중 어떤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어 왔다 (Chandras, 1979; Kitano, 1988; Lew, 1986; Leong, 1985; Sue & Sue1971).

Sue와 Sue(1971)는 아시안계 학생들이 겪는 문화적 갈등을 해결하는 세가지 방법에 따라 그들의 성격 특성을 분류했다. 첫째, 전통문화주의자-전통적 아시안 문화가치와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룹, 둘째, 서양화된 사람들-전통적인 아시안 문화적 가치들을 포기하고 미국 사회에 완전히 동화됨으로써 서양인으로서의 자존심과 긍지를 갖는 그룹, 셋째, 아

서양인-전통적인 아시아 문화적 가치에서 비롯된 부모의 권위 의식이나 문화적 유산을 취사선택하며 이중문화요소를 종합해나가면서 새로운 주체성을 확립해나가는 그룹, 이와 같은 분류는 아시아계 사람들이 서양 문화에 적응하는 방법과 개인차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자아정체감을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들 세가지 중 하나로 선택하게 되는지 그 요인을 설명하지는 못했다.

Kitano(1988)는 아시아계 내담자들을 위한 상담모델을 제시함에 있어, 서양문화에의 同化와 인종적 아이덴티티(identity)의 이원적(二元的) 차원에서 그들의 성격적 특성을 4가지로 분류했다. 첫째, 서양문화에 많이 동화되어 인종적 자아정체감이 낮은 그룹, 둘째, 서양문화에 많이 동화되기도 하고 인종적 자아정체감도 높은 그룹, 셋째, 서양문화에 덜 동화되고 인종적 주체성은 높은 그룹. 넷째, 서양문화에도 덜 동화되고 인종적 주체성도 낮은 그룹(P.119). Kitano가 제시한 개념도 아시아계 내담자들을 이해하는데 유용해 보이지만 자아정체감의 발달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탓으로 청소년들의 성격적 특성을 변화 발달의 차원에서 이해하는데 결함이 있어 보인다. Lew(1986)는 Suinn-Lew Asian Self-Identity Acculturation Scale을 사용한 연구에서 미국문화에 깊이 동화된 아시아계 학생들은 수학과 과학에 관련된 직업분야를 덜 선택한다고 주장했다. Lew의 연구는 미국문화에의 동화수준이 인종적 자아정체감의 발달수준 및 진로를 결정하는 학업능력과 성격특성 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Lew는 또한 성별에 따라 진로선택의 관심과 요구가 의미있는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민족적 인종적 자아정체감이 미국 문화에의 동화된 수준의 차에서만 고려되어졌기 때문에 자아정체감의 발달적 측면이 등한시 되었다.

Parham & Helms(1981)는 인종적 자아정체감(racial identity)을 어떤 사람이 그 자신의 민족적 인종(race)에 대한 개인적 신념과 태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인종분류와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비록 어떤 특정 분야의 학업 능력, 전통 고유의 민족적 문화에 관련된

뉴욕에 거주하는 한국청소년들의 Cultural Identity 발달과 직업선택의 상관 201

성격 특성, 그리고 서양문화에의 同化 수준 등이 아시안계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중요한 요인이라 할지라도, 신체적, 지적, 정서적으로 급격한 발달의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이해하는 데는 類型 및 特性論的 차원에서 빚어지는 잘못된 이해의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자아정체감의 발달론적 견해는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장래 진로를 선택 결정하는 측면에서 類型 및 特性論的 접근보다는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을 이해하는데 훨씬 적합하고 유용해 보인다.

4. 자아정체감과 장래 직업의식의 발달

Erikson(1963)은 자아정체감을 “자기자신 또는 자신의 과거 생활과 경험들과의 연속선상에서 자기자신에 대한 느낌”으로 정의했다. 즉, 과거와의 일치된 느낌 속에서 자기 발견 및 자기 확립의 과정으로 자아정체감을 정의했다. Erikson의 견해를 근거로 Weinreich(1988)은 자아정체감을 어떤 인간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맥락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로 정의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인생목표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나의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가?”, “나는 이성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까?” 이러한 관심들은 청소년기에 있어 자아정체감의 발달에 핵심이 된다. Erikson(1968)은 청소년 후기의 관심은 특히 직업선택에 관한 것이며 이는 자아정체감의 발달에 주요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Havighurst(1972)도 현대의 많은 청소년들이 자아정체감을 확립 발달시키지 못한 탓으로 그들 자신에 대한 불확실한 이해와 인생목표의 상실로 고통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20세기 전반기 동안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의 성취는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함으로써 이루어졌으며, 자아정체감의 형성수단으로써 아직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하는 것 외엔 아무런 방법이 있을 수 없음을 강조했다.

자아정체감의 발달과의 관련으로 청소년의 장래직업에 대한 관심에 대표적인 연구가 Marcia(1966)에 의해 수행된 면접으로 실시되었다. Marcia는 Erikson의 자아정체감의 개념을 분석하여 4단계로 그 발달단계를 나누어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도로 설명했다. 자아정체감의 발달 첫단계는 *identity diffused*로써 이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심각한 고찰이 없을 뿐 아니라 理想的 또는 직업선택에 대한 아무런 관심조차도 없는 상태이다. 자아정체감의 두 번째 단계는 *identity foreclosure*로써 자신의 장래진로에 관한 막연한 관심을 가질 뿐 전혀 심각한 문제로서가 아닌 상태이다. 세 번째 단계는 *moratorium status*로써 자아정체감의 성취를 위해 수많은 관심과 의문에 의해 위기 상태에 놓이는 시기로 적극적이고 활발한 장래 직업에 관한 질문을 형성하고 탐색한다. 자아정체감의 마지막 단계는 *identity achieved*로써 앞의 3단계를 모두 거친 후 자아정체감이 성취되는 상태이다. 즉, 분명한 자기 자신의 이해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직업선택도 결정되는 단계이다.

Marcia의 연구는 청소년을 이해함에 있어 장래의 진로문제와 관련지어지므로 미국 사회에서의 아시안계 청소년들의 진로 문제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문화적 갈등상황이 자아정체감 형성에 고려되지 않은 단점이 있다.

5. 소수민족계 학생들의 자아정체감 발달

최근에 소수민족의 자아정체감 발달(minority identity development)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그 MID접근이 다양한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에 중요하고 유용하다는 것이 인식되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흑인들을 모델로 하여 수행되었다.

Parham과 Helms(1981)는 1971년에 Cross(1971)가 흑인들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를 모델로 하여 개발한 Racial Identity Attitude Scale(RIAS)을 사용하여 지금까지 세차례에 걸쳐 수정 보완해오면서 흑

인들의 자아정체감 발달을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서 Helms(1989)는 그들이 설정한 MID의 4단계를 Erikson(1963, 1968)과 Marcia(1966)에 의해 설명된 자아정체감의 발달 4단계와 관련지을 수 있음을 주장한다. Parham과 Helms(1981)가 설명한 MID의 4단계와 그 성격적 특성은 1단계가 *Preencounter*로써 이 단계에 속해 있는 흑인의 성격 특성은 흑인 문화와 가치를 배척하는 한편 백인 문화와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수용한다. 이는 Marcia가 설명한 자아정체감의 1단계에 해당되며 그 성격적 특성이 유사하다. MID의 2단계는 *Encounter*로써 흑인으로서의 존재가치에 의미를 부여하는 단계로 백인 문화를 배격하기 시작하는 동시에 흑인문화를 수용하려 든다. MID의 3단계는 *Immersion*이라 하는데 자신을 흑인의 일원으로 의미를 찾으며 흑인 문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흑인 집단의 한 멤버로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 백인 문화는 철저히 배격된다. MID의 마지막 4단계는 *Internalization*으로 인종의 구별을 초월한 세계 속의 한 개인으로서 또는 한 인간으로서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찾는 상태이다. MID의 4단계는 Marcia의 자아정체감 발달의 4단계와 그 각 단계의 성격특성까지 잘 부합되어 보인다.

6. 아시안계 학생들의 자아정체감 발달

아시안계 학생들의 자아정체감 발달은 그들의 동서문화의 양면적 유산에 의해 뒤얽힌 것으로 지적되고 논의되어 왔지만(Elizabeth, Ahn-Toupin, & Son, 1987), 자아정체감의 발달단계에서 조사 연구된 논문은 극히 드물다. Lee(1989)는 아시안계 학생들의 문화적 자아정체감은 미국문화에로의 同化수준(정도), 자아개념, 그리고 심리적 영향등에 관련된다고 주장한다.

Kim(1989)은 뉴욕에 거주하는 한국 청소년의 소수민족으로서의 자아정체감 발달과 직업선호에 대한 소표집 연구에서 RIAS의 낮은 단계에 있는 여학생들은 조사연구 등의 직업을 선호하는 반면 RIAS의 높은 단

계에 있는 학생들은 예능 분야의 직업을 선호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이 연구에서 남학생들의 선호직종은 기업운영 분야에 나타났으며 RIAS의 각 단계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여학생들의 직업선호분야는 남학생들에 비하여 훨씬 제한된 몇몇 직종에 한정되었음을 발견했다.

7. 研究의 假設

선행 연구의 고찰을 근거로 두 그룹의 가설이 설정되어졌다.

가설 1. 한국계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 분야는 문화적 영향이 고려된 자아정체감의 발달단계에 따라 다르다.

가설 1-A. 자아정체감의 발달이 낮은 단계에 있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 분야는 높은 단계에 있는 학생들에 비해 분산될 것이다.

1-B. 자아정체감이 잘 발달된 학생들은 발달이 잘 안된 학생들에 비해 직업 선호에 있어 같은 분야로의 일관성(consistency)을 보일 것이다.

가설 2. 자아정체감의 발달정도에 따라 직업선호와 일관성에 있어 성별 차이가 있을 것이다.

2-A. 자아정체감이 잘 발달된 여학생들의 직업선호분야는 예능, 사회성 및 기업운영에 한정될 것이다.

III. 研究方法 및 節次

1. 研究對象과 標集

本 研究의 對象은 뉴욕시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국에 거

뉴욕에 거주하는 한국청소년들의 Cultural Identity 발달과 직업선택의 상관 205
 주한지 3년이상되는 한국계 청소년 학생들이었으며 標集은 편의적인 집단
 표집으로 14개 한국교회와 두 개의 한국학원(SAT준비)에 등록된 학생
 들이었고 1989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동안 자료가 수집되었다.

標集된 학생들의 性別, 연령별 상황은<표 1>과 <표 2>와 같다.

Table 1. Subjects by Gender (n=230)

Gender	Male(%)		Female(%)		Total(%)	
	Count	%	Count	%	Count	%
Count	118	51.3	112	48.7	230	100

Table 2. Subjects by Age (n=230)

Age	Gender (%)	Male(%)		Female(%)		Total(%)	
		Count	%	Count	%	Count	%
15		5	4.2	12	10.7	17	7.4
16		20	17.0	22	19.6	42	18.3
17		27	22.9	25	22.3	52	22.6
18		29	24.6	15	13.4	44	19.1
19		12	10.2	18	16.1	30	14.0
20		15	12.7	7	6.3	22	9.6
21		10	8.5	13	11.6	23	10.0
Total		118	100.0	112	100.0	230	100.0

표집된 학생들의 미국에 거주한 햇수와 그들의 출생지별 구분은 <표 3>와 <표 4>와 같다.

Table 3. Subjects by Length of Residence in the United States (n=230)

Years	Gender (%)	Male(%)		Female(%)		Total(%)	
3-5		25		22		47	20.4
6-8		22		27		49	21.3
9-11		26		19		45	19.6
12-14		15		23		38	16.5
15-17		26		17		43	18.7
18-		4		4		8	3.5
Total		118		112		230	100.0

Table 4. Subjects by Birth Places (n=230)

Birth place	Gender (%)	Male(%)		Female(%)		Total(%)	
Korea		98	83.1	91	81.3	189	82.2
U.S.A.		17	14.4	18	16.1	35	15.2
Other		3	2.5	3	2.7	6	2.6
Total		118	100.0	112	100.0	230	100.0

표집된 학생들의 종교, 인종 분류적 자아정체감,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 선호 상황은 <표 5>, <표 6>, <표 7>에 각각 나타나 있다.

Table 5. Subjects by Religious Preferences(n=228)

Religion	Gender (%)		Male(%)		Female(%)		Total(%)	
Buddhist			0	0	1	0.9	1	0.4
Christian			108	93.1	106	94.6	214	93.9
Other			8	7.0	5	4.5	13	5.7
Total			116	100.0	112	100.0	228	100.0

Table 6. Subjects by Ethnic Identity (n=230)

E.I.	Gender (%)		Male(%)		Female(%)		Total(%)	
Korean			48	40.7	36	32.4	84	36.7
K-A			67	56.8	73	65.8	140	61.4
American			3	2.5	2	1.8	5	2.2
Total			118	100.0	111	100.0	229	100.0

Table 7. Subjects by Language Preference (n=230)

L.P.	Gender (%)		Male(%)		Female(%)		Total(%)	
Korean			54	45.8	42	37.5	96	41.7
K-A			41	34.5	48	42.9	89	38.7
English			23	19.5	22	19.6	45	19.6
Total			118	100.0	112	100.0	230	100.0

2. 檢査道具

東西文化의 갈등상황에서 자아정체감 발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Racial Identity Attitude Scale(Helms & Parham, 1985)와 직업선호를 측정하기 위한 Vocational Preference Inventory(Holland, 1985), 그리고 자아정체감 발달과 진로문제에 관련된 자료를 얻기 위하여 My Vocational Situation(Holland, Daiger, & Power, 1980)등이 사용되었다.

3. 資料分析 方法

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RIAS를 수정하여 한국계 학생들에게 실시하였으므로 신뢰도 검증이 계획, 실시되었으며 이는 발달 4단계 중 각각 단계별로 Internal Consistency Coefficient, Goodness of Fit Index,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그리고 Total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등이 Corelation Matrix에 의하여 분석, 산출되었다. 그 결과는 <표8>, <표9>, <표10>, <표11>에 각 단계 별로 제시되었다.

LISREL(Linear Structural Relations)통계처리방법이 학생 개개인의 RIAS의 각 발달 단계별 점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RIAS의 4개 발달단계 중 각각의 단계별 점수는 LISREL에 의하여 산출된 각 단계별 문항의 비중에 의하여 계산되었다. 학생 개개인의 RIAS의 발달 단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Parhem과 Helms(1981)가 소개한 방식을 따랐다. 즉, 어떤 학생의 RIAS의 1단계인 Preencouner stage의 점수가 다른 2, 3, 4단계의 점수보다 높을 때 그 학생은 RIAS의 1단계에 소속시킨다. RIAS의 다른 세단계 중의 하나로 결정시킬 때에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때에만 한한다. 첫째, RIAS의 어떤 단계의 점수가 전체 표집된 학생들의 단계의 중앙값보다 높거나 같을 때, 둘째,

그 점수가 그 단계의 하위단계의 점수보다 높거나 같을 때, 셋째, RIAS의 첫 단계인 Preencounter stage의 점수가 가장 낮을 때, 제 2, 3, 4단계 중의 하나로 결정한다.

Table 8. Correlation Matrix and Internal Consistency for 14 items for Stage one

Item Number of the RIAS	4	8	9	12	21	25	29	31	32	40	41	44	46
8	.19												
9	.29	.10											
12	.21	.16	.22										
21	.13	.07	.03	.15									
25	.07	.18	.02	.02	.22								
29	.12	.25	.08	.12	.31	.32							
31	.02	.20	.05	.003	.08	.15	.27						
32	.26	.20	.14	.24	.33	.19	.36	.25					
40	.26	.12	.26	.31	.23	.24	.21	.07	.23				
41	.16	.20	.16	.27	.14	.19	.25	.07	.17	.43			
44	.09	.18	.13	.14	.09	.02	.10	.20	.26	.04	.10		
46	.21	.16	.07	.09	.21	.12	.23	.13	.23	.13	.12	.25	
47	.11	.17	.03	.09	.01	.31	.13	.07	.06	.16	.11	.05	.15

Internal consistency (Cronbach alpha) : .708

Goodness of Fit index : .897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 .860

Total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 : .480

Table 9. Correlation Matrix and Internal Consistency for 4 items for Stage Two

Correlation

Item Number of the RIAS	23	24	28
24		.01	
28		.35	.01
33		.18	.02 .09

Internal consistency (Cronbach alpha) : .3399

Goodness of Fit index : 1.0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 .999

Total coefficient of determination(R) : .743

Table 10. Correlation Matrix and Internal Consistency for 9 items for Stage Three

Correlation

Item Number of the RIAS	3	11	18	19	26	27	34	36
11		.18						
18		.19	.05					
19		.26	.26	.35				
26		-.01	-.09	.02	-.08			
27		.17	-.07	.33	.21	.06		
34		.36	.05	.25	.20	.06	.25	
36		.27	.15	.29	.22	.06	.39	.14
39		.20	.09	.23	.27	.10	.23	.35 .26

Internal consistency (Cronbach alpha) : .636

Goodness of Fit index : 0.939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 .898

Total coefficient of determination(R) : .613

Table 11. Correlation Matrix and Internal Consistency for 12 items for Stage Four

Correlation

Item Number of the RIAS	1	2	5	10	20	22	30	37	42	45	49	
2		.40										
5		.43	.22									
10		.15	.21	.02								
20		.38	.29	.44	.06							
22		.06	.12	.08	.12	.04						
30		.34	.26	.32	.08	.33	.04					
37		.40	.20	.44	.03	.47	-.04	.27				
42		-.05	-.14	.01	.02	.03	.15	-.10	.03			
45		.09	.17	.04	.16	.03	.34	-.03	-.06	.15		
49		.06	.17	-.04	.06	.07	-.01	.05	.14	.03	.03	
50		.38	.26	.37	-.03	.38	-.04	.40	.46	-.05	-.08	.36

Internal consistency(Cronbach alpha) : .66

Goodness of Fit index : .898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 .853

Total coefficient of determination(R) : .635

IV. 結果 및 解析

표집된 230명의 학생 중 128명이 RIAS의 어느 한단계로 할당되었다. 11명이 Preencounter stage에, 31명이 2단계인 Encounter stage에, 5명이 제3단계인 Immersion stage에, 그리고 81명이 제4단계인 Internalization stage로 분류되었다. 제2단계인 Encounter stage와 제3단계인 Immersion stage의 합병은 제3단계의 적은 숫자가 각 단계별 비교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두 단계의 연속성의 성격으로 간주되어 이루어졌다.

Vocational Preference Inventory (VPI)의 6개 직업분야에 대한 점수가 RIAS의 단계별로 <표12>에 제시되었다.

Table 12. Vocational Preference Inventory Mean Scores and Standard Deviations at Each Minority Identity Attitude Stage (n=128)

		Vocational Preferences					
		R	I'	A	S	E	C
R	Stage 1 (n=11)	M 0.73 ↑	1.27 ↑	4.18	2.18	3.18	1.73
		SD 1.01	2.15	5.13	2.43	3.31	1.85
I	Stage 2 (n=36)	M 4.14 ↓	5.22 ↓	6.25	4.56	4.39	3.33
		SD 3.18	3.34	4.02	3.74	3.24	2.99
A	Stage 4 (n=81)	M 2.58	4.44 ↓	5.49	4.58	4.05	2.77
		SD 3.40	3.91	4.12	3.99	3.49	3.45

Note. R=Realistic, I=Investigative, A=Artistic,
S=Social, E=Enterprising, C=Conventional,
Stage 1=preencounter,
Stage 2 & 3=encounter/immersion,
Stage 4=internalization

Realistic : preencounter versus encounter/immersion☆

Investigative : preencounter vs. encounter/immersion☆
preencounter vs. internalization ☆

Note. $p < .05$ ☆

일원변량분석의 결과는 VPI의 두 직업분야인 Realistic과 Investigative의 평균점수가 RIAS의 발달단계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있음을 보인다. 즉, Realistic분야의 F치와 probability(확률), p 는 $F(2, 127)=5.58$, $p < .0048$ 이었으며 Investigative분야는 $F(2, 127)=4.97$, $p < .0084$ 였다. 좀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하여 이 두 직업분야를 대상

으로 사후비교법(post-hoc)의 Scheffe검증을 하여 RIAS의 발달단계별 비교를 했다. 그 결과 VPI의 Realistic 분야에서는 encounter/immersion(합쳐진 2,3단계)와 1단계인 preencounter사이에서 의미있는 차가 나타났으며, VPI의 Investigative분야에서는 preencounter와 encounter/immersion, preencounter와 internalization stage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첫 번째 가설을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자아정체감의 발달단계에 따라 직업선택의 양상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관련된 또 하나의 가설은 RIAS의 낮은 발달단계에 있는 학생들은 비교적 폭넓고 많은 종류의 직업을 탐색하는데 비해 RIAS의 발달이 성취된 단계에 있는 학생들은 소수의 직업분야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자아정체감이 높은 수준에까지 달성된 학생들은 그들 장래의 진로를 어느 정도 결정해놓은 상태로 가정이 되기 때문이었다. <표12>에서 제2, 3RIAS단계인 encounter/immersion과 제4단계인 internalization의 VPI점수들을 살펴볼 때 대체로 제4단계의 점수가 2, 3단계의 점수보다 낮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Scheffe의 검증은 의미있는 차이가 없음을 보인다. 아마도 Scheffe의 검증이 두 그룹 사이에 있는 의미있는 차를 찾아내기에는 너무 신중하고 보수적인 통계방법이었거나 또는 Type II error(第二種의 誤謬)의 탓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Holland의 VPI의 6개 직업분야 별로 男女의 性別 차이를 탐색하기 위하여 <표13>에 VPI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가 성별로 제시되었다.

Table 13. Comparison of Boys vs. Girls on Each Holland VPI Category (n=128)

		Vocational Preferences					
		R	I	A	S	E	C
Boys (n=57)	M	3.68 ↑	4.58	4.61 ↑	3.56 ↑	4.12	3.09
	SD	3.54	3.68	3.76	3.74	3.48	3.24
Girls (n=71)	M	2.19 ↓	4.24	6.38 ↓	5.01 ↓	4.03	2.63
	SD	3.00	3.83	4.37	3.83	3.35	3.22

Note. R=Realistic, I=Investigative, A=Artistic,
S=Social, E=Enterprising, C=Conventional.

Note. p<.05☆, Realistic☆☆
p<.01☆☆, Artistic ☆☆☆ Social☆

VPI의 평균을 성별로 비교하는 t검증은 VPI의 Realistic($t=2.52$, $p<.01$), Artistic($t=4.61$, $p<.01$), Social($t=2.15$, $p<.03$) 세 분야에서 의미있는 차를 보인다. 性別差異가 RIAS의 발달단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하기 위해 VPI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RIAS발달단계에 따라 성별로 분류 <표14>에 제시되었다.

직업선택에 대한 남녀별 차는 RIAS의 낮은 발달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서 VPI의 Artistic과 Social분야에서 나타났다. 즉, RIAS의 preencounter와 encounter/immersion단계에 있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예능과 사회성이 요구되는 직업분야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RIAS의 internalization 발달단계에 있는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VPI의 Realistic직업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선택에 대한 일관성(Consistency)의 자아정체감의 발달단계별 차이를 탐색하기 위하여 Consistency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가 RIAS의 발달단계 별로 <표15>에 제시되었다.

Table 14. Vocational preference Inventory Mean Score and Standard Dviations at Each Minority Identity Attitude Stage Gender classification(n=128)

		Vocational Preferences					
RIAS	Gender	R	I	A	S	E	C
Preencounter	Boys M	1.0	1.0	0.3	0.3	1.0	2.0
	(n=3) SD	1.7	1.0	0.6	0.6	1.7	2.7
(n=11)	Girl M	0.6	1.4	5.6	2.9	4.	1.6
	(n=8) SD	0.7	2.5	5.4	2.5	3.5	1.7
Encounter & Immersion	Boys M	5.3	3.8	4.0	2.9	4.6	2.7
	(n=14) SD	3.4	2.1	3.9	3.0	3.8	2.7
(n=36)	Girl M	3.4	6.1	7.7	5.6	4.3	3.7
	(n=22) SD	2.9	3.7	3.5	3.9	2.9	3.1
Internalization	Boys M	3.3	5.1	5.2	4.0	4.2	3.3
	(n=40) SD	3.5	4.1	3.7	4.0	3.4	3.5
(n=81)	Girl M	1.9	3.8	5.8	5.1	3.9	2.2
	(n=41) SD	3.1	3.7	4.6	3.9	3.6	3.4

Note. R=Realistic, I=Investigative, A=Artistic, S=Social, E=Enterprising, C=Conventional,

Gender differences : $p < .05$

Preencounter : Social, Artistic

Encounter/Immersion : Investigative, Artistic, Social

Internalization : Realistic

For girls,

Realistic & Investigative :

Preencounter vs. Encounter/immersion

Encounter/Immersion vs. Internalization

For boys,

Artistic : Preencounter vs. Internalization

Table 15. Consistency Mean Scores and Standard Deviations at Each Minority Identity Attitude Stages(n=128)

	n	Mean	SD
Preencounter	11	4.09	1.04
Encounter & Immersion	36	4.28	1.09
Internalization	81	4.21	1.25

일원변량분석의 결과는 RIAS의 발달단계별로 의미있는 차이가 없음을 보인다. Consistency의 평균점수에 대한 男女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표 16>이 제시되어 있다.

Table 16. Comparison of Boys vs. Girls Score

	n	Mean
Boys	57	4.0
Girls	71	4.32

.05 α 수준에서 t검증은 Consistency평균점수에 있어 의미있는 男女別 차이가 없음을 보인다. 男女別 RIAS의 단계에 따라 Consistency평균치의 차를 탐색하기 위하여 <표17>이 제시되었다.

Table 17. VPI Consistency Scores and Standard Deviations at four stages of the RIAS(n=128)

-Gender Classification-

	gender	n	mean	SD
Stage 1	Boys	3	4.33	1.15
	Girls	8	4.00	1.07
Stage 2 & 3	Boys	14	4.00	1.04
	Girls	22	4.45	1.10
Stage 4	Boys	40	4.10	1.35
	Girls	41	4.3	1.15

Stage 1=preencounter, Stage 2&3=encounter/immersion, Stage 4=internalization.

.05의 α 수준에서 t檢證은 Consistency평균치에 남녀별 차를 발견하지 못한다. RIAS의 단계별로 성별차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一元變量分析의 결과도 Consistency평균치에 있어 RIAS발달단계 간의 어떠한 의미 있는 차이도, 또 性別로도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Consistency에 대한 RIAS발달단계별, 性別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 몇 가지 이유 중의 하나는 한국계 청소년들은 그들의 장래 진로와 직업을 생각할 때 흥미보다는 학과목에 관련된 능력(학업)을 비교적 많이 참작할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이럴 경우 RIAS발달 단계별 차이나 성별 차이는 변별력을 잃을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미국 사회에서의 소수민족이라는 지위로서 부모들은 물론 학생들 자신까지도 법률가나 의사와 같은 어떤 특별한 직종에 강한 선호를 갖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역시 성별 및 RIAS발달 단계별 Consistency에 차이가 축소될 수 있다.

V. 論議 및 結論

美國社會에서의 韓國 靑少年들은 東西의 二重文化 生活環境에서 自我正體感을 發達, 成就시켜야 하는 까닭에 우리 民族고유의 文化的 影響이 그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특히, 自我正體感의 概念이 進路問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進路指導에 필요한 方案은 東西의 二重文化的 갈등을 自我正體感의 發達, 成就에서 얼마나 잘 調和시키느냐의 觀點에서 얻어질 수 있다. 또 이러한 觀點에서의 學生理解는 학교 카운슬러들로 하여금 東洋文化的 影響을 實證적으로 적용한 類型論的 研究結果에서 비롯된 관에 박은 몇몇 性格特性에서 벗어나 모든 학생을 각각 그들의 自我實現을 이루려는 形成過程에 있음을 理解하도록 도울 수 있다.

本 研究의 結果로부터 몇 가지 議論할 사항은 첫째, 여학생들의 職業 선호는 남학생들에 比하여 比較적 自我正體感의 발달에 比추어 더 잘 説明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곧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比하여 더 자유로이 혹은 그들의 흥미본위로 장래 진로를 選擇하는 경향이 있음을 뜻한다. 둘째, 韓國 靑少年들은 그들 자신의 進路를 탐색함에 있어 소극적인 편인데 이 까닭은 자신을 理解하고 탐색하는 어려움에서 벗어나 성급한 진로결정 을 하려는 안일한 심리적 작용으로도 보인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이민한 많은 韓國 가족들은 자녀교육에 있어 二重言語에서 오는 고충을 겪는다. 실제로 많은 韓國 靑少年들은 모국어로 의사 소통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많은 韓國인들 사이에서 이러한 문제에 관 해 많은 論議가 있어 왔다. 本 研究의 結果는 美國社會에서 韓國系 靑少年들은 韓國 高유의 文化를 바탕으로 그들 자신의 自我正體感을 成就, 創造해야 함을 確證하고 있다.

參 考 文 獻

- Chandras, v.(1979).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Asian American students. *Annual Convention of the Southern Association for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October, 6-9.
- Cross, W.E.(1971). The Negro-to-Black conversion experience : Towards a psychology of Black liberations. *Black World*, 20, 13-37.
- Elizabeth, S.W., Ahn Toupin, M.A., & Linda Son(1987). Shattering some of the myths of the model minority.
- Erikson, E.H.(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 Norton.
- Erikson, E.H.(1968). *Identity : Youth and Crisis*. New York : Norton.
- Havighurst, R.J.(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3rd ed. New York : David Mckay.
- Helms, J.E.(1985). Toward a theoretical explanation of the effects of race on counseling : a Black and White model.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2(4), 153-165.
- Helms, J.E.(1989). An Update on Racial Identity Theory presented to the 6th Annual *Teachers College Winter Roundtable on Cross Cultural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New York City, February 1989.
- Helms, J.E. & Parham, T.A.(1985), *The racial identity attitude scale*.
- Holland, J.L.(1985). *Making Vocational Choices*.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Holland, J.L.(1985). *Manul for the Vocational Preference Inventory*. Odessa, FL :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Holland, J.L., Daiger, D.C., & Power, P.G.(1980), *My vocational situation*. Palo Alto, CA :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Hsia, J(1985). The silent minority : Asian American in education and work.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Chicago, Illinois, ED261124.
- Kim, T.H.(1989). Relations of minority identity development and vocational preferences of Korean American adolescent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Research Apprenticeship Paper, Syracuse University.

- Kitano, H.H.L.(1988). A model for counseling Asian-Americans. In P. B.Pedersen(Eds). *Counseling Across Cultures Hawaii : The East-West Center*
- Kwak. J.C.(1980). Vocational development of Asian American youth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 1980). ul :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1. 1956-7.
- Leoun, F.T.L.(1985). Career development of Asian Americans. ul ;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6(6), November 539-546.
- Lew, S.A.(1986). Factors influencing math/science career decisions in Asian American college students.(Unpublished Master of Science Thesis), Colorado State University.
- Marcia, J.E.(196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identity status. ul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 Lew, S.A.(1986). *Factors influencing math/science acreeer decisions in Asian American college students*.(Unpublished Master of Science Thesis), Colorado State University.
- Marcia, J.E.(196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551-558.
- Meredith, G.M.(1966). Amai and acculturation among Japanese American college students in Hawaii,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70, 171-180.
- Parham, T.A., & Helms, J.E.(1981). The influence of Black students' racial identity attitudes on preferences for counselors' ra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250-257.
- Parham, T.A., & Helms, J.E.(1985). Attitudes of racial identity and self-esteem :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6, 143-146.
- Sue, D.W. and Frank, A. C.(1973). A typological approach to the psychological study of Chinese and Japanese American College Males. *Journal of Social Issues*, 29(2), 129-149.
- Sue, D.W., & Kirk, B.A.(1972). Psychological characteristic of Chinese -American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9, 471-478.
- Sue, S., & Kitano, H.H.L.(1973). Sterotypes as a measure of success,

Journal of Social Issues, 29, 83-98.

Sue, S., & Sue, D.W.(1971). Chinese American personality and mental health. *Amerasia Journal*, 1, 36-49.

Weinreich, P.(1988). The operationalization of ethnic identity. In J.W. Berry & R.C. Annis(Eds.), *Ethnic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with Immigrant, Refugees, Native Peoples, Ethnic Groups, and Sojourners*. Berwyn, Pa. Swets North America Inc.

Yee, A.H.(1973). Myopic perceptions and textbooks : Chinese-Americans' search for identity. *Journal of Social Issues*, 29 99-133.

Yee, A.H.(1975). Discontinuities in minority graduate education : The case of Asian Americans in the social sciences and education. *Proceedings of the 15th Annual Meeting of the Council of Graduate School in the United States*, 15, 168-178.

ABSTRACTS

The relationships between Cultural identity and vocational preferences of Korean American adolescent students

Tai Ho Kim

The focus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vocational preferences and cultural identity development of Korean-American adolescent students. The cultural identity development of Korean-American adolescent students has been identified in terms of minority identity development because of their minority status in American society.

Using the Racial Identity Attitude Scale (RIAS) and the Vocational Preference Inventory (VPI),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re were: 1) meaningful relationships between cultural identity development stages and vocational preferences, 2) differences in consistency scores across the racial identity development stages, and 3) gender differences concerning vocational preferences and consistency scores over the racial identity development stages.

Subjects, consisting of 230 Korean-American adolescent students ranging in age from 15 to 21 years, completed the Racial Identity Attitude Scale, the Vocational Preference Inventory, My Vocational Situation, and a Demographic Questionnaire. The LISREL (Linear Structural Relations) statistical Procedure was used to categorize the subjects into the

RIAS stages. One hundred twenty-eight of two hundred thirty students were categorized in one of the RIAS stages : eleven students(three boys and eight girls) in the preencounter stage, thirty one students(eleven boys and twenty girls) in the encounter stage, five students(three boys and two girls) in the immersion stage, and eighty one(forty boys and forty one girls)in the internalization stage.

One-way ANOVA and Scheffe tests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ere certain meaningful relationships between racial identity development stages and vocational preferences. One-way ANOVA results and Scheffe test results also demonstrated that there were gender differences concerning certain vocational preferences between the racial identity development stages. However, no statistical differences were found on the consistency scores over the RIAS stages. Cultural background, lack of statistical power, and ceiling effect were discussed.